



이화소식

NEWS^{HA}

2004년 5월 6일 발행 제64호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정하영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 news.ewha.ac.kr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근대 여성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되살려

창립 120주년인 2006년 완공 예정

한국 여성교육 발상지 '이화학당' 복원

본교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학당' (梨花學堂)의 한옥(韓屋) 교사(校舍)를 신촌 캠퍼스 안에 옛 모습 그대로 되살린다. '이화학당'의 한옥 건물은 창립 1백20주년을 맞는 2006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 여성교육의 초창기 역사가 담긴 공간이면서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이화학당'의 복원은 본교가 지난 120년

간 한국 근대사와 교육사, 여성사에 있어 감당해온 역할과 의미를 되살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화학당'은 1885년 6월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여성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그해 10월 26일, 정동에 부지를 구입한 후 이듬해인 1886년 11월에 완공한 2백평 규모의 한옥이다.

이 건물은 배재학당 설립자인 아펜셀러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집"이었으며 건물 한가운데 마당이 있는 ㄷ자 형태의 큰 기와집이었다고 한다.

모두 7개의 방이 있었으며 학당장실, 교무실, 선교사 숙소와 교실,



1886년 완공된 이화학당 한옥교사 전경

3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등의 용도로 쓰였다고 전한다.

완공 다음해인 1887년 2월, 고종이 외아문(外衙門)을 통해 '梨花學堂'이라는 교명을 정식으로 하사, '이화학당'은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 국왕으로부터 교명을 하사받은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로 기록된다.

초기 이화학당의 상징물이 된 한옥 교사는 1897년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선교사

들에 의해 2층짜리 양옥 건물인 '메인홀'로 재건축되었으며 이는 다시 한국전쟁때 전소되었다.

본교는 복원될 '이화학당'을 소장 역사 자료의 철저한 고증에 따라 3세기에 걸친 한국 근대 여성사가 담긴 역사전시실, 특별전시실 등으로 꾸며 찾는 이들을 '120년전의 시간 여행'으로 초대하는 교육 명소로 키울 계획이다.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는 "'이화학당'이 복원되면 우리나라 교육문화재요, 서양문화와의 접점 1호로 길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화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키운다

경영학과 한국학, 특성화 사업단 발족

경영학과 한국학이 본교의 새로운 특성화(및 기반 조성) 영역으로 지정돼 이화의 경쟁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경영 특성화 사업단(단장 서윤석 경영대학장)과 한국학 특성화 기반조성 사업단(단장 김현자 인문과학대학장·한국문화연구원장)은 지난 3월16일 총장실에서 사업단장 위촉식을 갖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로서 본교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핵심 경쟁력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는 기존의 생명과학, 정보통신, 여성학, 디자인, 국제학, 나노과학을 포함, 총 8개 분야로 늘어났다.

경영 특성화 사업단의 사업 수행 1차 목표는 교육 수요자의 니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이다. 이화 MBA, 미 카네기멜론대학·프랑스 릴대학 등 해외 우수대학과의 복수학위제, Cyber MBA 등을 통해 경영학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과 실무중점교육을 강화하는 것.

회계, 금융, 재무, e-비즈 등 각 영역별 특성에 맞춘 실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여성고위 금융과정, 문화예술경영자 과정 등을 기획중이며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MBA 과정인 Action e-MBA는 이미 교육을 시작했다.



서윤석 사업단장



김현자 사업단장

서윤석 사업단장은 "과학기술경영, 문화예술경영 등이 공계 및 문화예술부문과의 연계교육과정 개발, 여성 경영인의 평생 주기를 연계하는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구성 등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학 특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크게 한국학 기반조성 사업과 주제 연구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반조성 사업은 그간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한국학 연구를 통합적인 한국학 연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화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주제 연구는 '한국의 일상문화' 라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교내 한국학 연구자들의 활발한 학제간 공동연구로 진행된다. 그 첫 번째 시도인 2004년 한국학 특성화 학술대회가 5월4일(오전 10시~오후 5시40분) 국제교육원 LG컨벤션홀에서 열렸다.

김현자 사업단장은 "이화의 심도있는 한국학 연구는 미국 중심의 단일문화권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민족국가로서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화리더십개발원, 17대 여성 초선의원 대상 워크숍 개최

여성의원의 의정 활동, 리더십 교육으로 지원



이화리더십개발원(원장 조 형 교수)이 여성정치원년을 이끌어갈 17대 초선 여성 국회의원들을 위한 '여성 국회의원 리더십과정'을 마련, 여성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에 나섰다.

5월1~2일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진행된 이 워크숍(사진)에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이경숙, 홍미영, 김영주 의원 등 8명, 한나라당 이혜훈, 김애실, 전여옥, 이계경 의원 등 10명, 민노당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등 총 22명이 참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17대 총선 과정에서 파악된 향후 정치전망과 유권자 요구, 언론·시민단체·보좌진이 말하는 성공적 의정활동의 모델, 국정운영의 구

조, 국정감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 강의 및 토론을 통해 의정활동의 윤곽과 실무를 익혔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 및 조형, 장필화, 이혜경, 조은 교수 등 한국의 대표적 여성학자들과 여성정책의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 22명의 참가자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

력을 제안하며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했다.

한편, 리더십개발원이 지난 4월17일(토)부터 7주간 진행하고 있는 여성부 고위관리 대상 '여성정책리더십' 과정도 여성정책 현장의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성학 이론가 그룹이 만나 한국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는 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은희 장관, 안재현 차관, 김애량 여성정책실장 및 여성부의 국장급 등 간부 12명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향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방향 설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인령 총장 황조근정훈장 수상

여성 법학교육의 비약적 발전에 큰 기여

신인령 총장이 제41회 법의 날인 4월26일, 정부가 수여하는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신총장은 본교 법



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및 헌법·노동법 등의 강의를 통해 여성법학 교육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로서의 실천적 노력,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이화여대 총장으로서 미래의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헌신하고 있는 점도 공적으로 꼽혔다.

2004학년도 제1학기 보직 발령사항 (2004. 5. 1일자)

| 보직명 | 성명 |
|----------------------|--------------|
| 재무처부처장 (예산·회계·구매) | 한기정 (법학과) |

이화의 교육환경 우리가 지킵니다!

- 신촌대 학가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열어

“**신촌**을 진정한 대학가로 되
살립시다!”

지나친 상업화로 대학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신촌 일대의 대학인들이 교육 환경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4월28일(수) 낮 12시 이화광장에서 열린 ‘신촌 대학가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사진)에는 본교의 ‘교육환경을 위한 교수 모임’ (대표 철학과 김혜숙 교수), 총학생회를 비롯, 서강대·연세대·이대·홍익대 풍물패 연합, 환경운동연합(대표 최열), 문화연대(집행위원장 강내희) 등이 참가, 왜곡된 상업문화로 물든 신촌 대학가를 지키자고 결의했다.

최근 정문 앞 대형쇼핑상가 ‘메이퀸’ 분양, 신촌공원 부지의 고층 주상복합빌딩 건설 움직임, 철도청의 신촌역 민자역사 건설 등으로 이화를 비롯한 신촌 일대의 교육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지 난해는 이대 앞 거리가 ‘미용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이화인들의 강



력한 반발을 샀고, “이는 여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교육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본교 김혜숙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 4월부터 이화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학가 교육환경 수호 활동이 시작되어 매주 수요일마다 이화의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학교앞 상업화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번 4·28 결의대회는 그 범위를 신촌 지역 대학인들과 시민 단체로 확대, 지성이 넘치는 건강한 신촌 만들기에 연대하고 나선 것. 2백여명의 참석자들은 식전행사와 결의문 제창 후 이화 광장에서 신촌 견고싶은거리까지 평화 행진을 벌였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정한 대학가로 거듭날 때까지 수호 활동을 벌이겠다”며 김혜숙 교수는 많은 이화인들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경력개발센터, 최첨단 커리어 라운지 문열어 취업분야별 전문상담서비스



경력개발센터(원장 최애경 교수)가 학생 문화관 1층(107호)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취업상담 공간 ‘커리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4월27일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가동

된 ‘커리어 라운지’는 총1백여평 규모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력개발 교육 프로그램, 최신 취업 정보 및 도서 자료, 취업서류 클리닉, 집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원 1주년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 경력개발센터는 향후 홈페이지를 개편, 웹 포트폴리오와 웹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현직 현장전문가를 상담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문 분야별 상담을 연중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최애경 원장은 “국제 인턴십 교과목과 국내 장기 인턴십의 학점화를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공별 career mapping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재학 중 진로 결정과 졸업 후 경력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21세기 진정한 리더, 여성!’이라는 주제로 김성주 사장(성주 인터내셔널)의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이후 신인령 총장과 윤순희 동창회장을 비롯한 2백명 내외의 귀빈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커리어 라운지 오픈행사가 열렸다.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만남

박물관 기획전시 <집의 숨·집의 결>



박물관(관장 윤난지 교수)이 기획한 <집의 숨·집의 결>전이 전남 영암 도기문화센터(사진 왼쪽)와 인근 구림마을 일대에서 오는 10월29일까지 열리고 있다.

박물관은 98년 영암 도기문화센터 개관 이후 센터와의 협력 하에 매년 특별 전시와 예술 사회 교육을 기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번 기획전시 역시 그러한 협력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고대 주거유적지이자 전통 한옥이 잘 보존돼 있는 영암 구림마을과 영암 도기문화센터를 무대로 열

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양주혜, 김태곤 등 15명의 현대 미술가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 후 ‘집’이라는 주제를 현대적 시각과 감수성으로 해석해 냈다. 전통과 역사(결)가 살아 있는 장소에 현재(숨)의 시각을 풀어냄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만남을 시도한 것이다.



김태곤 작 집우집우(cosmos House)

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 문화를 개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획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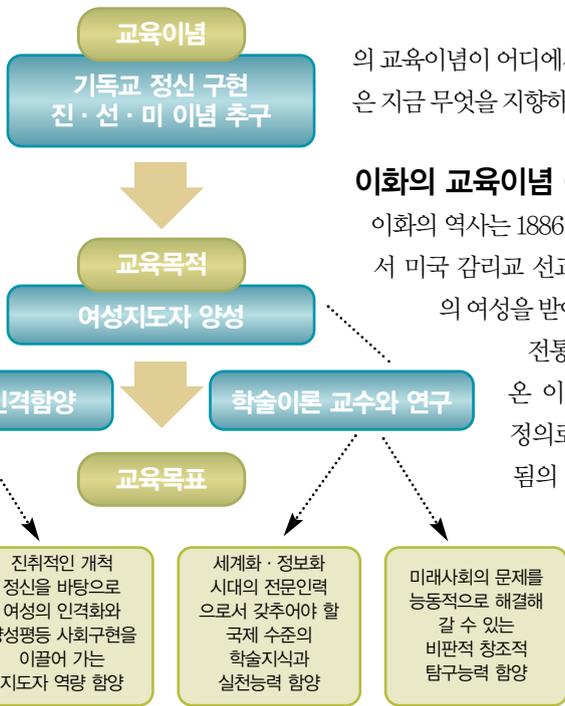
특성화, 개방화, 지식·정보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는 제1주기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보화, 국제화, 고학력화, 학습화 체제 등 21세기의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을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차별화 전략의 수립과 추진을 권장하며 대학교육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교 자체평가 위원회는 그동안 본교의 경영전략 및 운영, 특성화, 발전비전과 전략, 교육목적, 교육과정 및 방법, 연구실적, 학생·교수·직원의 현황과 만족도, 그리고 교육여건 및 지원 체제 등을 점검하여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중순에 실시될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대상 '대학종합평가를 위한 설문 조사'를 앞두고 이화의 각 구성원에게 본교의 비전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이화비전 21'의 내용을 알기 쉽게 형상화하였으며, 전 이화인을 대상으로 한 '이화비전 21 캐치프레이즈 공모'를 통해 이화인의 관심을 제고시켰다. 특히 '이화비전 21 캐치프레이즈 공모'에는 총 354여명의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이 참여, 이화의 비전을 알리고자 하는 높은 열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8면 관련 기사 참조)

그러면 이화의 구성원인 우리는 과연 이화의 비전을 알고 있을까? 이화



〈이화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의 교육이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화의 교육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아보자.

이화의 교육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이화의 역사는 1886년 5월 31일 서울의 황화방에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스크랜튼 여사가 한명의 여성을 받아 가르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통과 인습의 굴레 속에 억눌려온 이 땅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됨의 의미, 여성됨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와 민족사회 그리고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참된 평화를 이룩하는 꿈, 이는 바로 이화가 118년전에 품었던 진(眞)·선(善)·미(美)의 가치이

념이자, 우리의 교육이념이다.

이는 이화인들이 민족을 바탕으로 과학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세계적 보편인, 새로운 인류문명을 창출하는 창조적 지식인으로서 한국 여성사와 민족사에서 커다란 업적을 이루어 내는 정신적 자양분이 되어 왔다.

이화는 지난 118년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여성교육'을 통해 '여성 사회지도인력을 양성'하고 '남녀 양성 평등이 조화롭게 완성된 사회를 선도'하는 한국 여성사와 민족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화의 역사가 곧 개혁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화는 이제까지 이루어 온 성과들에 안주하지 않는다. 이화는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인식하고 그 변화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교육목적을 정비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세계 최고의 여성지도자 육성'이란 새로운 이화의 21세기 비전하에 이화는 교육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이화는 기독교적 인격 함양, 학술이론 교수와 연구를 기반으로 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화는 새로운 교육 목적을

첫째,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국가 및 인류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독교적 인격 함양

둘째, 진취적인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의 인격화와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역량 함양

셋째,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제 수준의 학술지식과 실천능력 함양

넷째, 미래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비판적·창조적 탐구 능력 함양으로 구체화하였다.

이화는 지금 지난 한 세기의 전통 속에 면면이 유지해 온 목표를 되짚어보고 또 확인하면서 이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진·선·미 추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알아봅시다

이화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이화 비전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세계 최고의 여성지도자 육성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萬人의 꿈은 현실이다” 한 조식이 지니고 있는 비전(vision)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본교는 12대 신인령 총장의 취임 이후, 기존 발전계획에 대한 검토, 연구를 통하여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진·선·미 추구'를 실현하기 위한 21세기 이화비전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세계 최고의 여성지도자 육성'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기독교 정신에 기초함'은 이웃과 국가,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도모하고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갖춘 건강한 인재의 육성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며, '세계 최고의 여성지도자 육성'은 자신의 분야에서 진취적인 개척정신으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리더십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재의 육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학술연구개발, 창의적·전문적·도덕적 인간교육 및 리더십에 기반을 둔 사회봉사를 통하여 '201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함을 발전목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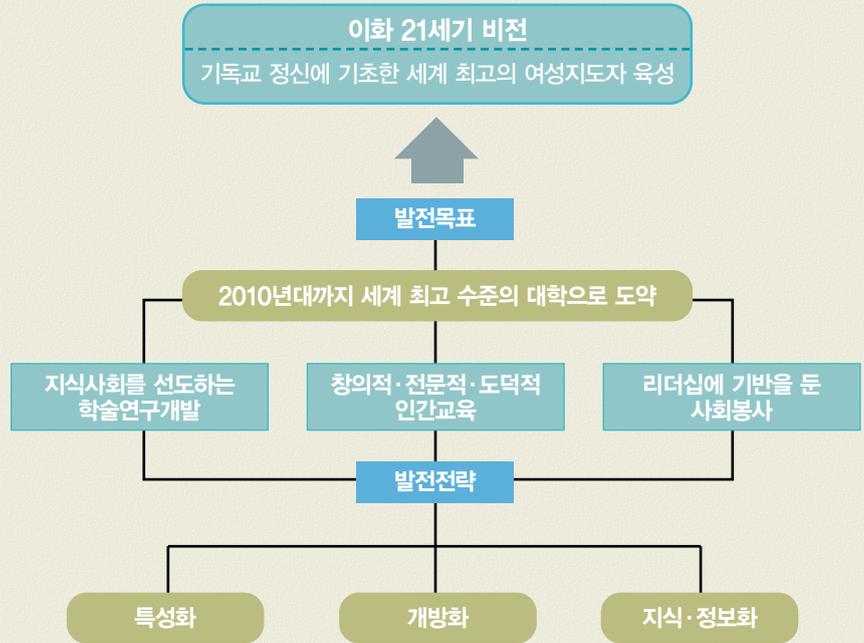
또한 특성화, 개방화, 지식·정보화라는 세 가지 발전전략을 채택, 추진함으로써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 발전전략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21세기 이화비전 발전전략

특성화, 개방화, 지식·정보화

이화는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여 왔다. '특성화' 전략의 목표는 창립이념을 진취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특화된 역량을 발굴·육성함으로써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21세기 이화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이화가 표방하는 '개방화' 전략은 외국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화는 물론이며 학제간·대학간·전공간의 개방 등 대학 내부시스템간의 개방, 국내의 대학 및 연구기



〈이화비전 21 체계도〉

관과의 교류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기업과의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 전방위적 체제 개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화가 선택한 전략은 '지식·정보화' 전략이다.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 연구 및 행정에 있어서의 정보인프라 토대 위에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나 융합, 변형 등을 통한 지식의 재창출과 같은 지식화의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이화는 지식창출 역량을 핵심으로 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을 도모한다.

21세기 이화비전을 구현할 이화의 경영 목표 및 전략들

"기독교정신에 기초한 세계 최고의 여성지도자의 육성"이라는 21세기 이화 비전과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들은 신인령 총장의 대학 경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우선 학부와 대학원에 대한 경영의 차별화로 학부를 중심으로 한 기초교육 강화와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학부의 경우, 경영목표를 ④ 학생 중심의 교육수

월성 확립, ⑤ 계 수준의 연구수월성 확립, ③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 달성, ⑥ 조 적 대학문화의 선도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수인적자원 확보 및 개발', '교육 및 행정시스템의 개선', '교육환경의 개선', '선택과 집중'이라는 4가지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⑦ 계 적 인 연구결과물의 창출, ② 여 성 전문연구인력의 육성이라는 경영목표 하에 '대학원 유형간 역할 확립', '선택과 집중', '세계적 교수 영입', '교육·연구·행정시스템의 개선'이라는 4가지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계적인 교수진 및 우수한 학생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지원 강화, 산학협동의 활성화, 책임경영과 성과시스템의 구축, 최고의 캠퍼스 환경 구축, 경쟁력 있는 학문분야의 선정과 육성 등의 세부 사업과제를 수립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략적인 발전기금 확보 등을 통한 재원확충과 더불어, 총장 직속의 감사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 무대 누비는 언어의 마술사 키워낸다

엄격한 교육과정과 국내 최고수준의 교수진이 강점

개원 8년째를 맞은 본교 통역번역대학원(원장 최영교수)이 최근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대회의 통역을 도맡아 수주하는 한편, 2004년도 입학경쟁률이 21대1(한영통역학과)까지 치솟는 등 국내 최고의 전문 통번역사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외대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설립된 본교 통역번역대학원은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의 통역학과와 번역학과 등 총 8개학과를 운영 중이다.

초기에는 영어와 불어로 시작했으나 2000년 중국어, 2001년에는 일어를 추가, 동북아 시대의 개막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 통번역사의 급증하는 수요와 맞물려 입학생의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입학생들의 학부 출신을 살펴보면 전원이 본교(33명), 고려대(11명), 서강대(9명), 서울대(7명), 연세대(18명), 한국외대(16명), 외국대학(10명)으로 채워졌다.

이같은 통역번역대학원의 약진은 이론 못지않게 현장 실무능력 강화를 중시하는 엄격한 교육과정, 국내 최고 수준의 통번역가들로 짜여진 교수진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우리 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원자들이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역학과와 번역학과를 분리, 이들에게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장 통역횟수가 1천회 이상인 국내 최상위권 통역사 10명중 절반을 넘는 인원이 우리 대학원 소속일 정도로 교수진의 수준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이진영 교학부장은 소수라도 제대로 된 현장 업무 능력을 지닌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졸업생들의 높은 질적 수준이 바로 통역번역대학원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1년에 한번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통역사 및 번역사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이 부족할 경우 굳이 정원을 채우지 않는다. 엄격한 교육과정 때문에 제적생이 한해에 몇 명씩 생길 정도이며, 졸업시험 역시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소문나 있다.

졸업생의 취업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전원이 대법원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 주요 언론사, 국내외 기업에서 외국어와 모국어를 넘나들며 기량을 펼치고 있다.

졸업생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재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을 익힐 수 있는 부설기관 통역번역센터도



UNEP 행사장에서 이진영, 배유정, 이유희, 이창희 교수(왼쪽부터)

1999년 설립된 이래, 학교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할 정도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굵직굵직한 국제회의만 꼽아봐도 2000년 ASEM 정상회의(서울), 2000년 APEC 정상회의(브루나이), 2000년 세계산업디자인대회(ICSID)를 비롯, 2001년 APEC 정상회의(베이징),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2003년 제주평화포럼, 2004년 제8차 UNEP 특별총회(제주도) 등이 센터 소속

교수진에 의해 통역 업무가 이루어졌다.

최근 통역번역대학원은 또다른 변화를 준비 중이다. 바로 일반인들을 통번역 세계로 초대하는 것. 작년 6월23일~25일에 열린 하계 워크숍 ‘통번역의 세계’가 좋은 반응을 얻은데 힘입어 하계, 동계 통번역 예비과정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회의 영어 워크숍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영어로 발표, 토론, 진행하는 요령을 가르치는데 유학준비생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군, 국책연구소의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좋은 훈련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영 대학원장은 “본교 통역번역대학원이 전문가와 아울러 일반 대중 및 통번역 수요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니인터뷰 번역학과 한일전공 이구치 미유키씨

“한국 영화의 일본 진출, 제가 앞장서야죠”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올해 본교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한 일본인 이구치 미유키씨(35세)는 2년의 준비끝에 번역학과(한일전공)에서 공부하게 됐다. 일주일 14시간씩 수업을 듣지만 수업 준비가 너무 힘들어 휴일이 없을 정도다.

한국에 매료되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98년 한국으로 건너온 이구치 미유키씨는 이듬해 서강대 사학과 3학년으로 편입, 2년간 공부하면서 한일 번역사로 진로를 잡았다.

“일본에서도 이화여대는 명문교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저처럼 이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오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번역학과가 따로 개설되어 있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문학번역, 미디



어번역 등 폭넓게 배울 수 있지 않아요.”

어색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가 자신의 욕심을 언뜻 내비쳤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사극 영화 ‘스캔들’을 일본에 소개하고 싶다는 것. 한국을 좋아한다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벌써 졸업시험이 걱정되긴 하지만, 언어 기술자가 아닌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번역가로서 활동하고 싶다는 이구치 미유키씨. 그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졌다. “통번역 공부하던 어떤 남자가 우리 대학원에 들어오겠다고 향의한 적이 있대요. 남자는 정말 못 다니나요?”(정)

“지구촌 축제에 ‘한국 예술혼’ 자랑해야죠”

- 아테네 올림픽공원에 작품 전시하는 강석영 교수,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 김광수 교수

올 8월 제21회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그리스 아테네 교외 국제 올림픽 도예공원에 작품을 영구 전시하게 된 도예과 강석영 교수와 올 9월 5일 개막하는 제9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 작가로 선정된 건축학과 김광수 교수를 만났다.

세계 정상급이 아니면 참여하기 힘든 지구촌 축제에 한국 대표로 초대받은 소감을 묻자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싱거운 웃음만 짓는다.

“1년전쯤 아테네 시로부터 그동안 올림픽이 개최됐던 21개 도시의 도예가를 선정해 도예공원을 조성한다며 연락이 왔어요. 한국 대표로 뽑혔으니 작품을 보내 달라구요.”(강석영 교수)

작품 의뢰를 받은 후 1년간 매달려 내놓은 강교수의 작품은 ‘순수, 화합, 축제’. 희다 못해 푸른빛을 발하는 지름 12cm, 높이 80~85cm 짜리 백자 원뿔 4백 개가 정사각형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줄 맞춰 서 있다. 뾰족한 끝부분이 이리저리 휘어진 모습이 강렬한 조명과 함께 마치 우성이 결정된 순간, 환성을 지르며 박수치는 군중의 율동감을 연상시킨다. 정제된 백색 흙으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 정신의 순수성과 백색을 즐기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동시에 표현했다는 이 작품은 앞으로 아테네 교외 올림픽 도예공원



김광수교수(왼쪽)와 강석영교수

에 영국의 앤터니 카로 등 세계 거장들의 작품과 함께 영구히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의 주제가 ‘방의 도시(City of Bang)’입니다. 건축가로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비공식적이고 혼재적인 모습을 탐색해 온 제 작업이 이번 주제와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김광수 교수)

송재호, 유석연 등 다른 건축가 2인과 함께 ‘방의 도시’를 꾸미게 될 김교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찜질방, 비디오파, 노래방, 전화방, 만화방, 독서실, 고시원 등 ‘가출한 방’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생각이라고.

“원래 집안에 있던 방들이 도시공간으로 나왔으니 가출한 것이죠. 우리의 직장, 아파트, 학교가 제도적 공간, 경직된 공간 그래서 상상력 없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대적 방 문화는 일탈적, 상상적 공간입니다. 여기서 퇴폐와 탈선, 불법 등을 제거하고 우리 방 문화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보고자 하는 것이 제 작업 의도입니다.”

찜질방을 두고 우리 여성들의 해방공간이라고 해석하는 그의 톡톡 튀는 사회적 상상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규>



이화인
이화in

“노벨상을 내 품안에”

선의를 경쟁자로 만난 두 화학영재, 자연과학부 1년 이혜승, 이윤진 양

자연과학부 새내기 이혜승 양과 이윤진 양은 둘 다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각종 화학 경시대회를 휩쓸었던 화학 영재들이다. 이들에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먹거나 아니면 공부하거나 그래요.”

2004년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매년 1천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 이혜승 양. 고3이던 지난해 본교 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며 이화와 첫 인연을 맺었다.

“과학고에 다닐 때는 남자 중학교를 견학 온 느낌이었어요. 요즘은 여자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게 편하고 좋아요. 미팅은 나중에 하려구요.”

이대는 여자들이 모든 걸 하니까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화를 선택했다는 이혜승 양의 아무진 대답이 이어졌다. 처음에 의대를 권하셨던 부모님은 신문에서 ‘과학도’들의 기사를 스크랩하며 딸의 공부를 지원해주시는 든든한 후원

자가 되었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 과학도가 목표인 이혜승 양은 당장이라도 여러 실험 장비들을 가지고 맘껏 실험을 해보고 싶단다.

“학교 탐방은 이미 끝났어요. 좋아하는 곳이에요? 중앙도서관 5층 열람실의 새 책상, 포스코관 6층 넓은 도서실, 종합과학관 도서관. 그리고 학생식당을 자주 가요.”

“저, 락밴드 보컬이었어요. 마돈나, 에미넴, 너바나, 비틀즈, 퀸 음악도 자주 들어요. 특히 마돈나는 음악 색깔을 계속 바꾸면서 최고를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맘에 들어요.”

만 17세인 이윤진 양은 고교 2학년생이던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수석으로 합격해 본교의 ‘21세기 지도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리고 정명숙 전 과학교육과 교수가 화학 전공생의 수석 입학울 축하하며 기부한 장학금까지 받았다.

“너무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책임감과 부담감도 들긴 해요. 그런데 상을



이윤진양(왼쪽)과 이혜승양

목표로 공부하면 재미가 없어요.”

2002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은상, 2003년 본교 수학과학경시대회 대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자의 대답이다. 신입생의 뽀뽀한 수업 일정 외에도 금요일마다 화학 전공 지도 교수의 실험실 미팅에 참석, 석·박사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는 이윤진 양. 실험실에 직접 참가할 날이 오기 전까지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

진심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새내기, 이혜승 양과 이윤진 양이 들려주는 여성 과학도의 미래는 ‘맑음’ 그 자체다. “여성 순수 과학도가 많이 없으니 이 길을 개척해놓으면 나중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민>

대상

“글로벌 시대의 환승역, Ewha UniverStation”



지난 4월6일~19일간 진행됐던 이화비전 21 캐치프레이즈 공모 대상, 우수상 등 총 14개의 당선작을 내고 마감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3백54명의 이화인이 1천여개의 다양한 캐치프레이즈를 응모, 뜨거운 이화사랑을 다시한번 과시했다. E.W.H.A 사행시, ○○를 □□하는 이화!! 등 이화를 격려하는 문장 만들기, 자유 형식의 캐치 프레이즈 등 세가지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영예의 대상은 초등교육과 4년 박혜진양의 “글로벌 시대의 환승역, Ewha UniverStation”이 차지했다.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화를 환승역에 비유한 이 작품은 특히 대학(University)과 역(Station)을 결합한 조어로 심사위원(주철환 언홍영, 김미현 국문과,

김민정 영문과 교수)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대상 1명 노트북, 우수상 3명 디지털 카메라, 장려상 10명 도서상품권)은 5월6일(목) 오후5시 본관 1층 홍보실에서 열린다. 우수장과 장려상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우수상 (3명)

- ★ 나의 미래 검색, E-wh@ (경제 4년 김민정)
- ★ Everytime We Have the Answer (EWhA 사행시, 사회생활학 지리전 공 3년 오진희)
- ★ Herstory is Your Story—Ewha! (중문 4년 조은혜)

장려상 (10명)

- ★ 최초의 이화에서 최고의 이화로! (컴퓨터 3년 이현주)
- ★ Ewha! Encouraging Women How to Achieve. (EWhA 사행시, 경영학부 1년 김예나)
- ★ 나의 첫 번째 수식어, 이화 (영교 3년 정선경)
- ★ E : Essence of your life!
W : Wings for your dream!
H : Herstory of the world!
A : Architect of the future! (법학 4년 최현정)
- ★ 날개는 없지만 이화가 있다 (국문 2년 조성은)
- ★ 나를 이끄는 이화, 내가 이끄는 이화 (경영 2년 신소라)
- ★ 이화의 깊은 샘, 21세기의 폭포를 품다 (법학 1년 신호나)
- ★ 빛을 내는 이화! 빛이 되는 이화! (과학교육 지구과학전공 4년 구은정)
- ★ Eyes on the World, Hearts with Aspiration (EWhA 사행시) (사회 4년 최규연)
- ★ 꿈을 꾸는 이화, 꿈이 되는 이화 (국문 4년 김연지)

입학처 소식

서울 및 주요 도시 순회 입시설명회 개최

입학처(처장 성태제 교수)는 3월8일 서울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및 전국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며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및 200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새로 제작된 본교 홍보비디오 상영과 2004학년도 입학전형 결과분석도 곁들여진다.

입학처는 4월 한달 동안 부산 등 지방 주요 6개 도시의 교장 및 진학부장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지역의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5월8일에는 천안에서 입시설명회가 개최된다.

입학상담도우미 및 입시상담원 모집

입학처는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상담도우미를 모집한다. 입학상담도우미는 1년 동안 입학처 홍보행사를 지원하고 재학생 모교 방문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상담원도 함께 모집한다. 입시상담원은 입학상담실의 입학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및 입시설명회 등 교외 홍보 행사에서 입시상담원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문의: (02)3277-2917~20, 홈페이지: enter.ewha.ac.kr

연구처·산학협력단 소식

■ 대형연구비 수주 현황

2004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연구과제 중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이 2억원 이상인 대형연구비 현황

(2004년 3월 현재, 단위:원)

| 구분 | 연구지원사업명 | 과제책임자 | 금액 |
|-----------------------------|---------------------------------|--------------|-------------|
|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학술 진흥재단 | BK21과학기술분야 (분자생명과학부)사업단(6차년) | 이공주 교수 | 492,000,000 |
| | BK21인문사회분야(거버넌스) 사업단(6차년) | 전주성 교수 | 486,000,000 |
| | BK21인문사회분야(언어학) 사업단(6차년) | 박창원 교수 | 255,000,000 |
| | BK21 신규사업(6개팀)(2차년) | 김선욱 외 5개팀 | 796,000,000 |

* 당해년도 연구비 총액 2억원 이상

■ 산학협력단 소식

연구처의 각종 연구과제가 산학협력단으로 이관되었다. 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산학협력단 설립과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연구과제의 계약주체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되었다.

경영대학원 교수진 온라인 강의 Action e-MBA 과정 개강

지난 해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본교가 개원 한 비즈니스 온라인 전문 교육기관 'e-비즈니스 여성 사이버 아카데미(www.eBizAcademy.net)'에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강의 콘텐츠를 담은 Action e-MBA 과정이 개설됐다.

Action e-MBA 과정은 '알기 쉬운 회계 기초', '조직 행위와 경영', '마케팅의 기본원리', '인터넷 시대의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경영학 비전공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쉬우면서도 체계적인 경영학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전 과정은 본교 멀티미디어 교육원의 교육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경영대학 교수진의 경영학 각 분야에 대한 명강의를 담은 동영상, PDF 등으로 이루어져 수강생들의 학습효과를 최대로 높이고 있다.

실무에서 경영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이나 MBA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과정이며 이 과정을 수료할 경우 경영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게 된다.

문의: 02)3277-4020 www.ActionMBA.net

국제교육원 하기대학 KAFE장학금 신설 해외입양학생에게 한국을 가르친다

국제교육원(원장 김은미 교수)이 해외입양학생들의 '모국 알기'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7월부터 6주간 진행되는 국제하기대학(International Co-Ed Summer School)에 해외입양 학생을 위한 KAFE(Korean Adoptee Fellowship at Ewha)장학금을 신설한 것.

KAFE장학금은 4년제 이상 대학 재학 중인 한국과 한국학에 관심이 높은 해외 입양 학생을 대상으로 매해 2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에게 수업료 및 기숙사비, 학생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국제교육원은 더 많은 해외 입양학생들이 KAFE장학금을 통해 모국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마감은 5월15일까지.

문의: 02)3277-3160, gosummer@ewha.ac.kr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포탈분야 COE 협정 체결 세계적 정보 네트워크 공유, 현실로



본교가 전국 대학 중 4번째로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COE(Center of Excellence) 협정(사진)을 지난 4월 22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교는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최고 정보기술 응용프로그램

을 연구, 교육, 행정 정보화에 활용하는 한편, 포탈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산학협력 차원의 각종 지원을 제공받게 됐다.

또한 COE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최첨단 정보 기술을 먼저 접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신기술 및 주요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COE협정 체결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기술을 보유한 교육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한양대학교, KAIST, 서울산업대학교에 이어 본교가 4번째이다.

기관소식

공대 방문한 존 마버거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여성 과학도들의 네트워킹이 중요”



“미국도 이공계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성 과학도들끼리의 강한 유대와 네트워킹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과학도들의 앞날은 밝다고 자신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존 마버거 부시행정부 과학기술정책실장(사진)이 4월27일, 본교 신영수 공대학장 등 공대 교수,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물리학 교수 출신으로 뉴욕주립대 총장을 역임한 그는 이공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과학도들의 장래는 밝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

<생명의 약속, 씨앗>

자연사박물관(관장 이인숙 교수)은 식물의 세대 연결 방법이자 이동수간인 씨앗의 오묘한 비밀을 알아보는 '생명의 약속, 씨앗'전을 5월25일부터 4층 기획전시실에서 마련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다양한 씨앗과 열매 형태, 산포 방법, 휴면, 발아, 이용과 보존 등에 대해 표본과 모형, 영상물 등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한 전시가 선보인다. 특히 영상을 활용한 체험코너를 디오라마실에 설치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정옥(金貞玉) 동구학원 이사장 별세

여성교육에 바친 한평생... '바른 마음과 바른 길' 가르친 스승



1947년부터 1969년까지 본교 교수를 지낸 김정옥 전 동구학원 이사장이 4월14일 오전 5시35분, 92세로 별세했다.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개척자 김활란 박사의 조카인 김 전 이사장은 이화여고와 본교 문과를 졸업(1936년)한 뒤 22년간 본교 교수로 봉직하는 등 줄곧 이화와 인연을 맺어오다 69년부터는 동구학원을 맡아 중고등 여성교육에 헌신했다.

60년대 본교 학생처장 시절에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으며 그러면서도 어려운 학생을 남몰래 돕는 끈끈한 정으로 제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김 전 이사장 밑에서 학생과장을 지낸 김연옥 본교 퇴임교수(영문과는 "늘 바른 마음과 바른 길(正心正道)를 강조하는 분이셨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곧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리라 바른 예절을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회고했다.

'이모님 김활란' '볼씨' 등의 저서가 있으며 '서울교육상' '춘강상' 등을 수상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조웅 동구여상 교장과 딸 조봉옥씨(미국 거주)가 있다.



자연과학대학 백동기 퇴임교수가 4월7일 오전9시 별세했다. 55년 사대 물리학과에 부임해 91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화에서 36년간 물리학을 강의하고 백교수는 한국물리학회 선임이사, 응용물리학과 위원장도 역임했다.



법대 서희원 퇴임교수가 4월7일 오후8시 별세했다. 63년 본교에 부임, 98년 정년퇴임한 고 서교수는 법대 제7대, 제12대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국제법을 강의했다.

수상소식



남원우 교수



송준임 교수

남원우교수(화학), 송준임교수(생명과학), 윤영대교수(분자생명과학), 하은희교수(의대), 김원기교수(의대)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03년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



윤영대 교수



하은희 교수



김원기 교수

된 과학기술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올해의 경우 총1백75편이 우수논문으로 뽑혔다. 논문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내용

| 주저자 | 현 직 | 논문 제목 | 학술지명 | 특기사항 | 추천학회명 |
|------|---------|--|--|-------------|----------------|
| 이학부문 | | | | | |
| 남원우 | 화학과 | First Direct Evidence for Stereospecific Olefin Epoxidation and Alkane Hydroxylation by Oxoiron(IV) Porphyrin Complex |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 S.C.I. (미국) | 대한화학회 |
| 송준임 | 생명과학과 | Specificity of two temperate dinoflagellate- anthozoan associations from the north- western Pacific Ocean | Marine Biology | S.C.I. (독일) | 한국동물분류학회 |
| 보건부문 | | | | | |
| 윤영대 | 분자생명과학부 | LIME, a Novel Transmembrane Adaptor Protein, Associates with p56lck and Mediates T Cell Activation | J. Exp. Med. | S.C.I. (미국) | 대한면역학회 분류학회 |
| 하은희 | 의대 | Infant Susceptibility of Mortality to Air Pollution in Seoul, South Korea Synergistic | Pediatrics | S.C.I. (미국) | 대한예방의학회 |
| 김원기 | 의대 |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by phorbol ester and interferon- γ is mediated through NF- κ B and ERK in microglial cells | 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 | S.C.I. (미국) | 한국응용약물학회 |

교수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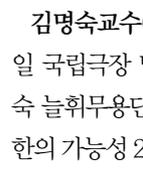


성기옥교수(국문)가 지난 3월27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사기학회 정기총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박성희교수(언홍영)가 한국언론학회 공식 영문저널인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ACR) 편집인을 맡아 지난 3월 창간호를 냈다.



김영석교수(법학)가 영국 Wisdom House Publication 에서 영문 저서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of the Rome Statute' 를 출간했다.



김명숙교수(무용)가 지난 3월20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김명숙 늘휘무용단의 신작 '공간 그 무한의 가능성 2' 를 공연했다.



주영자교수(작곡)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New Music Society (신음악학회)의 작품발표회를 5월2일 (오후7시30분)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가졌다.

퇴임교수동정



이효재 퇴임교수가 학술서 '조선조 사회와 가족' 을 펴냈다. 조선 후기 신분제 해체과정에서 상민·천민계급 여성들이 가족의 생존과 신분상승을 위해 오히려 양반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시대적 모순을 탐구한 역작이다.



황병기 명예교수가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2004년도 제14회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교수는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공헌했으며 국악의 세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6월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중앙도서관 현영애 과장 한국도서관상 수상



지난 3월26일, 중앙도서관 정보처리과 현영애 과장이 한국도서관협회 제55차 총회에서 제36회 한국도서관상(개인부문)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1977년부터 27여 년동안 본교 도서관에서 근무하며 도서관 정리업무의 표준화 및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기여했고, 2000년 웹기반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업무가 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것 같아 기쁘다”는 현영애 과장은 작년부터 도서관 e-learning 개발팀에서 활동 중이다.

농민 시름 더는 사랑의 손길

노조 이화봉사회 충청지역 농가 봉사활동



지난 3월27일, 노동조합 이화봉사회가 올봄에 예기치 못한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충청지역에 봉사활동(사진)을 다녀왔다.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복구 작업이 미비한 농가를 돕자는 취지로, 노조 이화봉사회 회원 7명과 학생 조교 1명, 가족 1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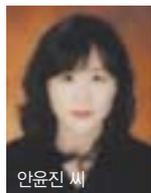
회원들은 폭설로 인해 가장 피해가 컸던 충북 청원군 옥산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철거 및 폐자재 정리, 철골 재활용품 분류 및 절단작업 등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왔다. 이화봉사회는 “피해농가 대부분이 복구 일손이 모자라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지역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의 선진 행정 이끌 신입직원 17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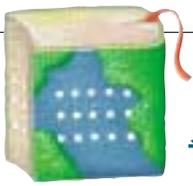
총무처(처장 김명 교수)가 2004년 신입 직원 공채 및 특채를 통해 총 17명의 신입 직원을 선발했다. 2월19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이번 공채에는 일반행정, 재무(예산/회계), 전산직, 사서직등의 모집분야에 지난해보다 3백여명이 늘어난 9백17명의 지원자가 응시했다. 총 5단계의 선발 과정 중 3차 단계인 실무면접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다년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본교 행정과장들이 지원자들의 조직 적응도를 보는 인성 평가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신입 직원 채용과 더불어 지난 4월1일(목)에 있었던 직원 인사발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참조)



| 소속 | 성명 | 직위 | 발령사항 | 비고 |
|---------|-----|----------|-----------------------------|-------|
| 관재과 | 조원숙 | 사무직원(과장) | 명: 구매과 | |
| 후생복지과 | 김윤옥 | 영양사(과장) | 명: 후생복지과(본교 근무) | 근무지변경 |
| 구매과 | 김영재 | 사무직원(과장) | 명: 관재과 | |
| 교육실 | 이계욱 | 사무직원(주임) | 명: 주임(2004. 3. 31) 보: 과장 | |
| 인문과학대학 | 김봉련 | 사무직원(주임) | 명: 주임(2004. 3. 31) 보: 과장 | |
| 중앙도서관 | 현영애 | 사서(주임) | 명: 주임(2004. 3. 31) 보: 과장 | |
| 학적과 | 남경희 | 사무직원(주임) | 명: 입학과 | |
| 입학과 | 정경희 | 사무직원(주임) | 명: 과학기술대학원 | |
| 후생복지과 | 김영희 | 영양사(주임) | 명: 후생복지과(교사리 수련관 근무) | 근무지변경 |
| 사범대학 | 박미희 | 사무직원 | 명: 주임 명: 의과대학 | |
| 교무과 | 이금숙 | 사무직원 | 보: 주임 명: 법과대학 | |
| 구매과 | 조혜순 | 사무직원 | 보: 주임 | |
| 중앙도서관 | 이정희 | 사서 | 보: 주임 | |
| 중앙도서관 | 이나니 | 사서 | 보: 주임 | |
| 중앙도서관 | 장인경 | 사서 | 보: 주임 | |
| 중앙도서관 | 이현주 | 사서 | 보: 주임 | |
| 부총장 비서실 | 배은영 | 사무직원 | 명: 인문과학대학 | |
| 인문과학대학 | 이한나 | 사무직원 | 명: 대외협력과 | |
| 입학과 | 유선자 | 사무직원 | 명: 사범대학 | |
| 학생복지센터 | 김영인 | 사무직원 | 명: 대외협력과 | |
| 회계과 | 최희진 | 사무직원 | 명: 예산과 | |
| 대외협력과 | 김은지 | 사무직원 | 명: 연구과산학협력단 | |
| 신임 | 이덕규 | 사무직원 | 명: 기획처 홍보과 보: 홍보실장 | |
| 신임 | 박경옥 | 사무직원 | 명: 인사과 | |
| 신임 | 노정호 | 기술원 | 명: 시설과 | |
| 신임 | 조현숙 | 의사 | 명: 대학보건소 | |
| 신임 | 박미경 | 사무직원 | 명: 교무과 | |
| 신임 | 이선민 | 사무직원 | 명: 학적과 | |
| 신임 | 안윤진 | 사무직원 | 명: 학적과 | |
| 신임 | 김민정 | 사무직원 | 명: 홍보과 | |
| 신임 | 오지은 | 사무직원 | 명: 학생복지센터 | |
| 신임 | 최혜정 | 사무직원 | 명: 입학과 | |
| 신임 | 이주연 | 사무직원 | 명: 회계과 | |
| 신임 | 김나영 | 기술원 | 명: 정보시스템개발과 | |
| 신임 | 이인영 | 사서 | 명: 중앙도서관 | |
| 신임 | 박순진 | 사서 | 명: 중앙도서관 | |
| 신임 | 문선하 | 사무직원 | 명: 경력개발센터 | |
| 신임 | 서지인 | 사무직원 | 명: 국제교육원 | |
| 신임 | 양진 | 사무직원 | 명: 연구과산학협력단 | |



출판부 새책

부드러운 논리 아름다운 생각 |

소홍렬 지음

사유의 논리로 연역 논리만 고집할 수 있을까? 수학적 연역으로 논리를 제한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사유의 논리를 연역 논리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비연역 논리의 유형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진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부드러운 논리'라는 제목은 바로 이와 같은 비연역 논리의 유형을 포함하는 사유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도구화하는 뜻에서 붙여졌다.

우리의 사유 세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인간의 논리적 사유를 향상시켜줄 자료가 되길 바라며 쓰여진 이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읽을 만한 책' (4월)에 선정되기도 했다. (8천원)

봄흠처럼 |

정연희 외 지음

창간 50주년을 맞은 이대학보에서 역대 기자 30명의 글을 모아 한권의 책으로 엮어 냈다. 가정에서는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사회에서는 문인으로, 교수로, 기자로, 여성운동가로 살아가며 경험하고 느낀 삶의 진실을 담담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가사분담, 일과 자녀양육의 병행,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등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한편에서 여성들이 지닌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아 찾기에 도전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보여준다. (8천원)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 |

박은정 외 지음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2002년 9월에 발족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엮었다. 세포응용연구사업에서 진행되는 줄기세포 관



련 연구과제들이 윤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에 대한 제반 연구지침과 심사규정,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줄기세포연구의 성과가 한국 과학자들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포응용연구 관련 윤리 프로그램 개발'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줄기세포연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1만1천원)

질적 연구 방법론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지음

질적 연구는 인간 탐구에 있어서 물리적 현상을 탐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시각과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연구서다.

질적 연구의 배경 사상과 철학, 질적 연구의 기본 가정과 관점, 질적 연구의 진행 절차, 구체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 질적 연구 적용 등 질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담아 질적 접근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사랑의 힘 |

앨리스 워커 지음, 박정오 옮김

영화 '컬러 피플'의 원작자이자 현대 미국문학의 대표 작가 중 한 사람인 앨리스 워커의 자전적 에세이와 논쟁적인 글을 모은 수필집이다. 성별이나 흑백으로 인간을 구별하지 않고 인간의 총체성을 추구하는 자세로 꾸준히 저술활동을 펼쳐 온 워커의 개인적 삶의 단면들과 최근 생각의 흐름을 직접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원제에서 알 수 있듯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낙관과 긍정의 마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녀의 글을 통해 '사랑의 힘'이 주는 위안을 기대해 본다. (1만2천원)

맑은 정치, 희망 정치 이끄는 이화의 힘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난 4월15일 총선에서 총 11명의 본교 동문이 당선되었다. 이는 여성 당선자 39명의 28.2%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치 풍토 만들기에 이화인의 역량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민의를 대표하게 될 이화 동문들은 지역구의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 이미경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등을 비롯, 비례대표로 한나라당 3인, 민주당 2인, 열린우리당 4인 등 각 정당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비례대표 당선자중에는 이계경 여성신문사 명예회장, 손봉숙 한국정치연구소 이사장, 이경숙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여성계 출신들이 동용되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한 전여옥 전 KBS기자와 이승희 전 청소년보호위원장도 나란히 금배지를 달게 됐다. 정당쪽에서는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고경화 동문과 열린우리당 총

괄 조직실장 유승희 동문 등이 발탁됐다. 동문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명숙 동문



이미경 동문



이계경 동문



전여옥 동문



고경화 동문



손봉숙 동문



이승희 동문



이경숙 동문



홍미영 동문



유승희 동문



강혜숙 동문

| ◆ 지역구 |
|--------------------------------------|
| 한명숙 (불문 67년졸, 경기 고양일산 갑/ 재선 · 열린우리당) |
| 이미경 (영문 73년졸, 서울 은평 갑/ 3선 · 열린우리당) |
| ◆ 비례대표 |
| 이계경 (사회복지 74년졸 · 한나라당) |
| 전여옥 (사회 82년졸 · 한나라당) |
| 고경화 (영문 84년졸 · 한나라당) |
| 손봉숙 (정의 66년졸 · 민주당) |
| 이승희 (정의 79년졸 · 민주당) |
| 이경숙 (신방 76년졸 · 열린우리당) |
| 홍미영 (사회 78년졸 · 열린우리당) |
| 유승희 (기독 82년졸 · 열린우리당) |
| 강혜숙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79년졸 · 열린우리당) |



동창회 간담회

총동창회 1년 사업계획 보고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동창회 간담회가 지난 4월20일 동창회 대화실에서 열렸다. 각 대학 및 과회장, 지회장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윤순희 총동창회장은 동창회 1년 사업계획과 모교 창립 118주년 동창의 날 행사계획을 보고했다.

윤순희 총동창회장은 이 날 모교 창립 118주년 동창의 날 행사에 각 단과대 학장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올해의 이화인 추천과 합창경연대회, 동창회보경연대회 등의 행사에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경림 대외협력처장이 참석, 이화캠퍼스 센터(ECC) 신축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동문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했다.

‘2004 이화언론인’

김선주(한겨레 논설주간), 김혜경(KBS 시청자센터장), 박옥희(이프토피아 사장)

이화언론인클럽(회장 신연숙 한겨레 미디어사업본부장)은 ‘2004 이화언론인’상 수상자로 김선주 한겨레 논설주간과 김혜경 KBS 시청자센터장, 박옥희 이프토피아 대표를 선정, 4월29일(목) 오후 7시 경영관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정기총회와 겸해 열렸다.



김선주 동문



박옥희 동문

수상자인 김선주 한겨레 논설주간(국문 69년졸)은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로서 생활환경부장, 문화부장, 출판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00년부터 논설위원을 맡아왔다. 사회적 불평등과 세대간 갈등의 해소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를 이슈화시킨 칼럼이 수상 이유. 지난 2월에는 논설주간으로 임명되어 한겨레 신문의 논조를 주도하고 있다.

김혜경 KBS 시청자센터장(교육공학 78년졸)은 KBS 사상 최초로 사내 인 사고과 상향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김혜경 동문

발탁 승진한 방송사 최고위직 여성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78년에 공채 5기로 KBS에 입사한 김 동문은 PD로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두루 경험했고 라디오 편성부장, 라디오 1,2부장을 지냈다.

박옥희(신방 73년졸) 이프토피아 사장은 페미니즘 저널 IF지를 창간, 운영해 오면서 안티미스코리아 대회 등 페미니즘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선희 동문(교육학 72년졸)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20여년 동안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 오다 지난 3월29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한국교육사회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이용인 동문(무용 97년졸)

제8회 독일 슈투트가르트 솔로댄스 페스티벌에서 무용수부문 1등상을 수상했다. 이동문은 'Below Surface'라는 작품으로 8명이 겨룬 결선에서 1등을 차지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거쳐 독일에서 활동 중인 이동문은 이번 수상으로 상급 3천5백유로와 함께 독일 5개 도시 순회공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정연희 동문(국문 58년졸)

지난 3월17일 서울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정동문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순회특과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직도 맡고 있다.

김정순 동문(영문 83년졸)

최근 하나로통신 CFO(재경부부장)에 내정돼 통신업계 첫 여성 CFO가 되었다. 오하이오 주립대와 클리블랜드 주립대에서 회계 금융정보 시스템 경영학 석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대우중공업을 거쳐 볼보건설기계코리아에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박지은 동문(사체 03년졸)

지난 3월29일 LPGA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우승, 박세리에 이어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 보유자가 됐다. LPGA투어 입문 5년 만에 정상에 오른 박동문은 상급랭킹 1위와 함께 '올해의 선수' 포인트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수연 동문(교공 93년졸)

첫 장편영화 '4인용식탁'으로 지난 3월26일 백상예술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이동문은 여성의 섬세한 시선으로 여성의 육아 스트레스 및 가족제도 내에 잠재한 공포를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 감독들과 함께 옴니버스 영화 '이공'을 준비 중이다.



이경숙 동문(이류직물 72년졸)

첫 장편 소설 '475번 도로위에서'가 여성동아 장편 당선작으로 뽑혔다. 자신의 이민생활이 바탕이 된 이 소설은 한국인 이민자들의 삶을 담담히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동문은 75년에 도미해 오하이오 톨리도에 살고 있으며 2003년에는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전 단편소설 부문에 당선된 바 있다.

권지예 동문(영문 83년졸)

자신의 성장기를 토대로 한 첫 장편소설 '아름다운 지옥'을 출간했다. 권동문은 2002년 '뱀장어 스토리'로 제26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일약 평단의 주목을 받는 기대작가로 부상했으며 2003년 두 번째 소설집 '꼭소'를 냈다.



장학금, 발전기금 등 따뜻한 '이화사랑' 이어져



조형대, 학생과 교수활동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조형예술대학(학장 김영기 교수)은 학생과 교수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여 현재 1억4천3백만원을 조성하였다. 이 기금은 우수학생 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교수 워크샵, 교수의 국제 활동 지원, 동창 모임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기금 조성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는 아래와 같다.

김규란 2천만원 · 김미선 2천만원 · 남명현 2천만원 · 박용번 2천만원 · 이성민 2천만원 · 전순주

2천만원 · 최남순 2천만원 · 박도의 3백만원

장학금 기탁현황

비서학과 동창회(회장 김숙자)는 2003년 6월부터 비서학과동창회 장학금 모금을 전개하여 5천만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42,451,958원을 조성했다.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창들의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 문재숙 교수(한국음악), 윤명자 교수(성악)가 각 5천만원을 약정, 현재까지 5천만원 장학금을 기탁한 음악대학 교수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본교 국제화자문단 일원인 Wendy Lee Gramm 교수(미 조지 메이슨 대학)는 지난 3월

12일에 열린 특강 강사로 전액 \$5,000을 국제대 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그 외 2004-1학기에 지급되는 장학금 후원 명단

한상준 3백만원 · 유종근 동문(영문 67년졸) 3백만원 · 김정희(패션디자인연구소) 3백만원 · 이종미 교수(식품영양) 2백만원 · 대학교회 2백만원 · 신완 4백49만원 · 일곡문화재단(이사장 최재선) 1백50만원 · 김미경 교수(식품영양) 1백20만원 · 아현감리교회 1백만원 · 박양덕(이영희 상임고문) 60만원 · 임원옥(이영희) 60만원 · 이영희연합회 50만원 ·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anada) CAN \$632.52

E-pro(2%) 온라인 모금캠페인 1백18명 참여



대외 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는 2003년 8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장학기금E-pro(2%)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pro(2%) 모금 캠페인의 의미는 '용돈의 2%', 'Ewha 후배를 pro로~!' 라는 것으로 소액모금과 장학금을 뜻한다.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ewha21.ewhain.net>) 또는 이화인닷컴 사이트(<http://www.ewhain.net>)를 통해 캠페인 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없이 장학기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금액은 1,000원/3,000원/5,000원/10,0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인터넷 ARS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인원은 118명이며 참여금액은 약 1,280,000원에 달한다.

E-pro(2%) 온라인 모금 참여자 명단 (가나다 순)

■ 재학생, 졸업생 회원(83명)

강소진·곽상경·권민지·김경진·김동주·김민영·김봉정·김선희·김수진·김영윤·김영희·김윤아·김윤희·김정미·김정주·김정현·김지영·김지영·김지원·김하나·김희령·나연실·류은미·문지은·문창선·민명수·박미영·박윤희·박윤희·박은영·박윤희·박정미·박정원·박지은·박진향·배미심·백주희·선문숙·소지현·송다정·송혜리·안은숙·안정은·유애리·윤은용·윤정미·이기원·이도희·이보민·이성우·이소영·이수령·이수진·이승원·이윤진·이정아·이정은·이지영·이지은·이호숙·이화주·임자영·임현숙·전미재·전애숙·정소영·정혜정·조상순·조성미·조윤영·조현영·조희정·주기화·진정현·최경옥·최서연·최유리·최인희·최자경·허경미·허수진·현정아·황영미

■ 교직원 회원(28명)

김영재·김은지·김지수·남경희·명옥희·박미용·박지영·방정운·선윤정·신경림·신인령·심세성·오혜원·윤명희·이양준·이용서·이은규·이정희·이현혜·임정임·정화경·정희정·조금희·최선열·최연숙·표은자·황정인

■ 일반회원 및 기타회원(7명)

공명진·김창현·김현주·박지아·손희호·손승혜·이수철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을 위한 기탁

이명 3천만원·주영주교수(교육공학) 천만원·구혜원(교육공학 박사과정졸) 천만원·봉미미 교수(교육공학) 5백만원·양혜순 교수(영어교육) 5백만원·박지연 교수(특수교육) 3백만원·이계영(교육 82년졸) 3백만원·정혜영 교수(초등교육) 3백만원·한종임 교수(영어교육) 3백만원·백경숙(보건교육 73년졸) 2백만원·최수복(보건교육 73년졸) 1백50만원·김영자(교육학 68년졸) 1백만원·김지희(교육학 82년졸) 1백만원·박은경(교육공학 73년졸, 멀티미디어교육원) 1백만원·이경희(교육공학 82년졸) 1백만원·이은경(교육공학 74년졸, 멀티미디어교육원) 1백만원·이주희(교육공학 93년졸) 1백만원·최성희(교육공학 88년졸) 1백만원·강희숙(보건교육 73년졸) 50만원·김유숙(교육공학 74년졸) 50만원·박준희(보건교육 73년졸) 50만원·배경실(보건교육 73년졸) 50만원·백희(보건교육 73년졸) 50만원·이영희(보건교육 73년졸) 50만원·조경순(보건교육 73년졸) 50만원·하영자(교육공학 89년졸) 50만원·오정숙(교육학 82년졸) 30만원

발전기금 기탁자

패션디자인연구소 7천5백만원·정경희(동양화 67년졸) 5천만원·한국투자신탁 3백84만원·안원자 동문(간호 67년졸) \$500·이은숙 동문(간호 89년졸) 89만원

이화캠퍼스센터(ECC) 기금 참여 현황

교직원 및 동문들의 관심 속에 ECC 기금모금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ECC 기금을 내주시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화인 동문(교육심리 69년졸, 국제재단이사) 천만원·손무인 동문(계약 78년졸, 대학보건소) 5백만원·유하연 동문(정보디자인 98년졸) 5백만원·목선영 동문(화학 95년졸) 1백만원·조윤경 동문(신방 97년졸) 10만원

후배들을 위한 작은 보탬의 실현, 이화인닷컴장학금

김희정 동문(신방 93년졸)은 학교에 기부금을 낼 방법을 찾던 중 <이화소식>에 소개된 'E-pro(2%) 온라인 모금 안내'를 보고 이화인닷컴 사이트를 통해 E-pro(2%) 모금에 1백만원을 약정했다. 인터넷을 통해 약정할 수 있어 편리했다는 김동문은 후배를 위한 장학금이라 더욱 보람을 느낀다는 말을 전했다.



동대문 종합건강검진센터 재개원



동대문병원(원장 연구월) 종합건강검진센터(사진)가 1개월 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재개원했다. 병원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종합건강검진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실내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바꿔 환자와 보호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게 됐으며 각 검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실을 별도로 만들었다.

특히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소화기(대장 및 직장경) 검진, 여성검진, 심장검진, 암검진 등 검진과목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했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재개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원 '봄을 여는 음악회' 열어



이화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건일)은 지난 3월20일(동대문병원)과 4월6일(목동병원) 두 번에 걸쳐 '봄을 여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유니 스트링 앙상블 연주단이 희망차고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

사해 병마에 지친 환자와 보호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

원무과 앞 로비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참석해 새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음악을 들으며 봄날의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다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금 수여

의과대학 동창회(회장 지현숙)가 지난 2월 재학생 7명에게 2004년도 의과 동창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2004년도 의과대학 동창회 장학금은 이민지(의학1), 서유정, 황유화(의학2), 이정진(의학4)이, 동문 개인 장학금인 오혜숙 장학금은 허지미(의학1), 김명수(의학2)가, 이현숙 장학금은 정혜선(의학4)이 받았다.

의과대학 동창회 사무실에서 치러진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정화순 의과대학 학장을 비롯, 지현숙 동창회장 및 개인 장학금 수여자인 오혜숙, 이현숙 동문이 참석해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독거 노인 위한 무료시술 시행



동대문병원 한국인 공관절센터에서는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 인공관절시술을 시행한다. 동대문 병원 인공관절센터 개소 기념

으로 시작된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 시술의 첫 수혜자는 청운양로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관절염으로 고생해 온 방순점 할머니(사진 가운데). 종로구 보건소의 추천으로 지난 3월17일 무료시술을 받게된 할머니는 시술 전 관절염으로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게 된 할머니는 "다시 걷게 해준 인공관절센터와 김영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동대문병원 한국인공관절센터에서는 앞으로도 구청의 추천을 통해 매년 1~2명의 독거 노인에게 사랑의 시술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동대문병원 교육연구부장에 김종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선임



동대문병원 교육연구부장에 마취통증의학과 김종학 교수가 선임됐다. 김 교수는 산과마취와 통증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로 다양한 학회활동과 해외연수 경험을 갖고 있어 동대문병원의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임 김종학 교육연구부장은 노스웨스턴대학 메모리얼 병원과 신시네티 대학병원에서 심장마취, 중환자관리, 소아마취, 통증, 산과마취 등 전문분야 진료를 통해 경험을 쌓았으며 독일 Kiel에 있는 Christian-Albrechts 대학에서 심장마취와 통증과 관련한 마취과 전문과정의 연수를 마치고 스탠포드대학에서 심장 마취, 통증, 산과마취 연수를 받았

다. 국내에서는 대한마취과학회 홍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 산과마취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윤건일 의료원장이 이끄는 대한신장학회, 우수 의학학회로 선정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신장학회가 대한의학회에서 선정하는 의학학회 우수상을 받았다. 대한신장학회는 모든 평가항목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학회가 전국 단위의 통계조사사업을 실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공로가 인정돼 우수상에 선정됐다.

